

부동산 재테크, 광주선 재미 못봤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가치 사실상 제자리 매매차익 '세종시 특수' 충남의 절반에도 못미쳐

광주지역 부동산 양도 차익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도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지역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낮은 데다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 탓이다.

16일 국제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준)은 충남이 61.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양도차익률은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을 다시 양도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양도가격이 1천만원이면 양도차익이 613만원이라는 뜻이다.

특히 광주는 30.4%로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광주는 세종시 건설 특수를 누리던

(6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남 다음으로는 강원(55.7%), 충북(52.2%), 대구(52.0%), 경기(51.8%) 순이었고 서울은 46.2%로 11위였다. 전남은 45.4%로 전국 평균(48.4%)을 밑돌며 12위에 머물렀다. 대전(33.0%), 인천(38.0%), 부산(37.3%) 등도 양도차익률이 낮은 편이었다.

충남은 2005년에도 양도차익률이 49.4%로 1위였지만 정부가 토지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2005년 12월15일)한 이후에는 양도차익률이 60%대로 강중 뛰어올랐다.

충남과 함께 세종시 예정지 인근의 충북도 양도차익률이 3년간 13.9%포인트나 증가했다. 충북의 양도차익률은 2005년 38.3%에 불과했던 것이 2006년 45.8%로 급증했고 2007년 46.2%에 이어 2008년에는 52.2%까지 커졌다.

이처럼 충청권의 부동산 양도차익률이 다른 시

■전국 주요 지자체 부동산 양도 차익률 (단위:백만원, %)

지자체	자산건수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차익률
서울	73,241	25,528,164	11,803,445	46.2
인천	37,722	5,571,233	2,133,731	38.0
경기	151,477	25,322,303	13,123,362	51.8
강원	38,716	2,413,880	1,345,290	55.7
대전	7,712	1,083,874	357,249	33.0
충북	35,678	2,333,889	1,218,271	52.2
충남	50,343	4,384,607	2,686,246	61.3
광주	7,490	794,070	241,685	30.4
전북	40,092	2,136,895	1,057,500	49.5
전남	29,318	1,320,155	599,051	45.4
대구	17,879	2,504,747	1,302,320	52.0
경북	53,883	3,115,258	1,482,820	47.6

※2008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준·자료 국제청

·도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세종시 건설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학기 책가방 선물하세요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신학기를 맞아 지하1층 패셔너블트 매장에서도 다양한 책가방과 문구류를 선보이고 있다.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책가방+학용품' 세트는 6만원, 학용품 세트는 3만2천원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증권맨 4만374명

1인당 평균 생산성 7,458만원
하나대투 최고 대신증권 최저

국내 증권맨 수가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증권맨 1명이 벌어들이는 평균 순이익은 7천458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의 최근 1년간 1인당 순이익은 하나대투증권이 1억4천1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신증권은 4천44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협회에 각 증권사가 신고한 임직원 수는 모두 4만374명으로, 4만명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내 증권맨 수는 2005년 2만9천862명, 2006년 3만1천609명, 2007년 3만6천526명, 2008년 3만9천179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1년간(작년 9월 말 기준) 61개 전체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3조7천338억원, 당기순이익은 3조111억원으로, 증권사 직원 1인이 평균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9천248만원, 순이익은 7천458만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기준 10대 주요증권사별 최근 1년간(작년 12월 말 기준) 1인당 생산성(순이익)을 보면 하나대투증권이 1억4천188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신증권이 4천44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생산성 2위는 삼성증권으로 1억164만원을 기록했으며, 3위는 대우증권으로 8천573만원, 4위는 우리투자증권으로 8천116만원, 5위는 한국투자증권으로 7천927만원, 6위는 현대증권으로 7천576만원, 7위는 신한금융투자 6천967만원 등이었다. <연합뉴스>

어음부도율 ↓·신설법인 ↑

새 주택담보대출 금리
잔액기준 4.11%
신규 3.88% 확정

광주·전남 1월 동향

광주·전남지역 1월 중 어음부도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은 0.25%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0.32%에서 0.35%로 0.03%포인트 상승한 반면 전남은 0.35%에서 0.16%로 0.19%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부도율은 90억3천만원으로 전월보다 19억6천만원 감소했고, 업종별로는 농림, 축·수산업, 광업, 전기수도가스업 등 기타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 도·소매,

전산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신규 부도업체수는 전월 10개에서 4개 줄었으나, 신설법인수는 293개로 전월보다 36개나 증가했다.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비율은 48.8배로, 전월 51.4배보다 하락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인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금리가 잔액기준은 4.11%, 신규 취급액 기준은 3.88%로 각각 확정됐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홈페이지를 통해 코픽스 기준금리를 처음 공시했다.

연합회는 매달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오후 3시에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코픽스를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코픽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7일부터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양도성에금증서(CD) 연동 대출과 비슷하거나 0.1~0.2%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당장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SC제일은행은 기존 CD 금리 연동 대출상품보다 0.10%포인트 낮은 금리의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인 '뉴퍼스트홈'을 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벼도 온라인으로 사고 판다

쌀값 안정위해
4월부터 허용

4월부터 벼도 온라인으로 거래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4월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www.eat.co.kr)에 벼를 거래 품목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대량으로 사고파는 기업 간 거래(B2B)만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벼의 사이버 거래가 시작되면 벼값이 지금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이 전국적으로

로는 균형을 이뤄도 특정 지역 내에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벼 거래 구조의 특성 때문이다.

벼는 통상 수확기에 농업인들이 인근 미곡종합처리장(RPC)나 농협에 판매한다.

이렇게 팔린 쌀은 수확기에 나온 쌀할 소비가 얼추 끝나는 이듬해 3월께부터 도매로 거래되기 시작하는데 '알음알음' 형태로 판매가 이뤄진다.

지역을 기반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끼리 사고판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런 특성 탓

에 전국적으로는 쌀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도 특정 지역에선 쌀이 남아 돌거나 혹은 부족해 값이 큰 폭을 아니어도 출렁이는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벼의 사이버거래는 이처럼 소수끼리 이뤄지는 거래의 장(場)을 '다수대 다수'로 바꿔 국지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벼의 선물(先物)거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직은 타당성이거나 거래 모형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연합뉴스>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SK브로드밴드·광주교육대 MOU

SK브로드밴드는 광주교육대학교(총장 박남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을 위한 유·무선통합(FMC)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와 광주교육대학교는 16일 오전 대학 대회의실에서 유·무선 통합서비스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교대 교직원들은 캠퍼스 내에서 FMC 단말기를 통해 저렴한 인터넷 전화 요금제로 통화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단말기를 이용해 문서결제나 공지사항 등 그룹웨어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학생들도 교내에서 인터넷 전화 요금제로 통화하고 학내 학사일정이나 강의시간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 협력 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이명근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왼쪽)과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이 16일 대학 내 대회의실에서 유·무선통합 서비스 제공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이는 전국 공·공립대학교 내에서 처음으로 구현되는 FMC 서비스다.

이명근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은 "모기업인 SK텔레콤과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대학 등과의 제휴·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보청기
SINCE 1967
www.kib.com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으십니다. 2. 만 보입니다. 3. 가격이 마음에 듭니다.

가족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